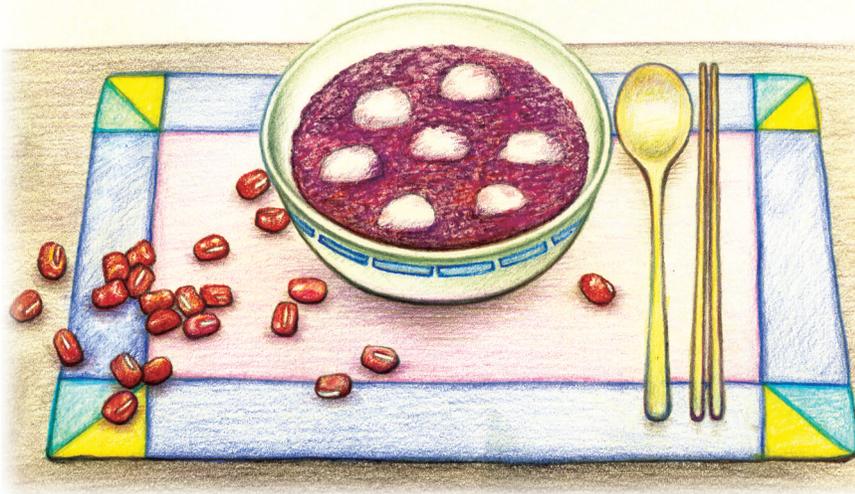


동지에는 팥죽을 끓이세요

권오분
자유기고가



어려서 먹던 음식 중에 가장 기억에 많이 남는 음식 중 하나가 팥죽이다. 동짓날이면 팥을 삶는 구수한 냄새가 마을에 가득했다.

커다란 가마솥에 팥죽을 끓이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팥이 솥바닥에 눌어붙지 않게 하려면 계속 젓고 불 조절을 해가며 끓여야 하니 불을 때는 사람과 죽을 짓는 사람이 따로 있어야 했다. 찰수수 가루나 찹쌀가루를 반죽해 동그란 새알심을 만들어 팥팥 끓을 때 넣어서 익히면 팥죽 만드는 일이 끝난다.

새알처럼 동글동글하게 새알심을 빚는 일은 언제나 내 몫이었다. 솥바닥 안에서 말랑한 반죽이 동그랗게 변하는 느낌이 너무 좋았고 하얀 떡이 쟁반 위에 새알처럼 모여 있는 모습이 귀엽고 예뻐다.

팥죽이 뜨거울 때 이웃집에 돌리는데 우리는 언제나 마을에서 가장 먼저 끓였다. 그래서 팥을 삶다 출출하던 참이었는데 맛있게 먹겠노라는 인사말을 들을 때마다 심부름을 한 나는 괜스레 어깨가 으쓱해지곤 했다.

다른 집들은 팥죽을 끓이면 방마다 한 그릇씩 퍼다 놓고 장독대 마루에도 담아놓곤 했다. 솔가지를 꺾어서 팥죽 물을 문혀 화장실이나 돼지우리에 뿌리기도 하고 벽에 바르는 집도 있었다. 잡귀를 막거나 나쁜 병을 예방하는 방식이었는데 아버지는 이미 죽은 귀신은 겁낼 일이 없으니 살아 있는 사람들에게 주는 것이 더 좋다고 하셨다. 지금 생각하면 아버지는 겁이 없

으셨던 것 같다. 죽은 이보다 산 사람에게 잘하라는 말씀은 내 삶의 지표가 되기도 했다.

절기상 밤 시간이 더 길었다가 동지를 기점으로 낮 시간이 길어진다. 그래서 새날이 시작되는 날이라고 하여 작은설이라 부르기도 했다. 추운 겨울에 보자기에 싼 팔죽 그릇을 들고 다닐 때 죽 그릇을 통해 전해지던 온기가 늘 생생하게 가슴에 살아 있다. 그 추억을 떠올리면 때때로 행복감에 빠지곤 한다.

어릴 때는 차진 음식을 즐기지 않는 편이어서 죽 그릇에 새알심만 남겨 꾸중을 듣곤 했다. 어른들은 새알심을 나이대로 먹어야 한 살 더 먹는 거라고 하셨는데 그때 새알심을 안 먹었기 때문인지 나는 아직도 어린애 같은 마음에서 벗어나질 못하고 있다.

요즈음에는 옛날처럼 어렵게 팔죽을 끓이지 않는다. 어머니께서 살아 계실 때는 많은 양의 팔을 삶아 으깨어 팔 껍데기를 제거하는 일이 가장 힘이 들었다. 지금은 식구들 먹을 만큼만 팔을 준비해 압력 밥솥에 넣고 푹 삶아 주걱으로 대충 으깨고 밥도 따로 압력 밥솥에 해서 적당한 양의 물을 붓고 끓이면 너무 쉽다. 팔의 농도를 진하게 하려면 삶아놓은 팔을 더 넣으면 되니 조절하기도 편하다.

나는 통팔이 입안에서 씹히는 느낌을 아주 좋아한다. 마냥 부드러운 죽을 원한다면 믹서에 갈면 된다. 쌀과 함께 끓이기는 번거롭고 시간이 많이 걸린다. 새알심 만드는 일은 더 번거롭다. 찹쌀가루나 수수쌀 가루를 만들려면 방앗간에 가거나 마른 가루를 사야 하는데 둘 다 쉬운 일이 아니다.

찹쌀로 만든 음식을 싫어하는 나는 가래떡을 알맞게 찢어 넣는다. 쫄깃한 가래떡은 말캉한 찹쌀 새알심보다 식감이 더 좋다. 요즈음에는 시중에서 사철 가래떡을 살 수 있기 때문에 1,000원어치만 사도 팔죽에 넣고 남는 것으로 떡볶이까지 해 먹을 수 있다.

뜨끈뜨끈한 팔죽을 이웃집에 한 그릇씩 돌렸더니 팔죽을 귀찮아서 어떻게 끓이느냐며 부지런하기도 하다고 한마디씩 한다.

“오분 팔죽 모르세요? 압력 밥솥에 밥 따로 팔 따로 삶아서 적당히 섞어서 다시 한번 끓이고 왕소금만 조금 넣으면 그만인데 뭐가 힘들어요. 새알심 대신 가래떡 사다 찢어 넣었으니 너무 감탄하지 마세요. 팔죽 잡수시고 신중 플루인가 뭐가 거뜬히 이겨내시라고 예방 차원에서 준비했어요. 이 팔죽 드시면 신중 플루 안심하셔도 됩니다.”

“정말이야? 잘 먹을게. 말도 참 그럴듯하게 하는구먼.”

아닌 게 아니라 나이가 들면서 녀살만 는 듯싶다. 그러나 빈말은 아니다. 팔은 칼로리가 높고 영양소가 많이 함유되어 겨울철 보양식으로 손색이 없다. 옛날 사람들이 액과 병을 막기 위해 팔죽을 먹었다는 것은 과학적으로도 타당하다는 생각을 한다.

올 동지에는 모든 사람들이 팔죽을 끓여 먹었으면 좋겠다. 정말 팔죽이 신중 플루를 이길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생기는 건 왜일까?